



5·18 민중항쟁 첫 희생자인 김경철씨는 청각장애인으로 당시 금남로에서 친구들을 만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에 둘러싸여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계엄군은 그에게 '방어리 흉내를 낸다'며 더욱 모진 폭행을 휘둘렀고, 그는 어머니에 의해 병원을 전전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어야 했다.



김안부씨는 1980년 5월 19일 공사 현장으로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광주공원 인근에서 계엄군에 맞아 숨졌다. 그는 아내 김말옥씨와 네 자녀에게 이틀 뒤인 '부처님 오신 날' 가족 소풍을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 <5·18기념재단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자료영상>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6 | 해질 19:22 | 달 뜨기 22:15 | 달 지기 07:56

한 낮 초여름 날씨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1/27	보성	맑음	7/24
목포	맑음	10/22	순천	맑음	11/26
여수	맑음	14/21	영광	맑음	7/24
나주	맑음	7/28	진도	맑음	9/22
완도	맑음	12/24	진주	맑음	8/26
구례	맑음	7/27	군산	맑음	9/22
강진	맑음	8/25	남원	맑음	6/26
해남	맑음	8/25	홍산도	맑음	12/19
장성	맑음	7/27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안	남동~남	0.5	남서~서	0.5
남해안	남동~남	0.5~1.0	남서~서	0.5~1.0
남해안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해안	북동~동	0.5~1.5	남동~남	0.5~1.0
남해안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수면	70
운동	50
빨래	70

요일	날씨	기온
8(금)	☀	12/25
9(토)	☀	13/26
10(일)	☀	13/25
11(월)	☁	13/21
12(화)	☁	15/24
13(수)	☀	13/24
14(목)	☀	13/25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동영상 숙연

■ ‘1980년 5월 19일 그날, 남편은 일을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삶을 핑계로 그의 등을 떠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제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만든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라는 동영상이 5월을 맞아 지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당시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5월 광주에 대한 왜곡·편향 시도가 끊이지 않는 현재 전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자식을 잃거나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구술한 내용을 바탕

80년 당시 숨진 151명 중 20명의 기구한 사연 다큐물

5월 맞아 기념재단측 이메일로 시민 1만3천명에 발송

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지난 4일부터 광주 시민 등 1만3000여명에게 편지 형식으로 발송하고 있다.

재단이 배포한 동영상은 각각 3분55초 내외의 편집본으로, 5·18 기념재단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제작된 원본에서 2명의 사연을 뽑아내 재구성한 것이다.

원본 동영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숨진 151명의 희생자 중 20명의 사연을 묶어 배우들의 재연을 통해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1명의 사연은 3~4분 내외, DVD로도 제작된 두 장의 영상은 각각 10명의 사연

을 담아 한 편당 38분, 22분12초 가량이다. 5·18 민중항쟁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 행방불명자 등 가족들의 구술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돼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5·18 기념재단의 동영상 편지 보내기는 극심한 5월 역사 왜곡·편향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민주발전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했던 영상이지만 시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에 따라 ‘웹 편지’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기념재단측은 향후 시민들에게 띄워질 영상 편지 주인공도 확정해놓고 있다.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해 최초로 숨진 청각장애인(♯) 김경철 열사를 시작으로 김경환, 김인태, 김재형, 김정선, 김중식, 박기현, 강복원, 류동운, 기념공, 임은택, 최미애, 임정식, 고영자, 권근립, 문재학, 김재홍, 김형진, 임옥환 등 20명이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민중항쟁 35주년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왜곡된 역사가 아닌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 올바른 정보와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임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관련

5·18 대표단, 박대통령 면담 무산

35주년 기념식도 파행 불가피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35주년 행사위)가 6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기념곡 지정 문 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김정길 35주년 행사위 상임위원장과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 등 대표단은 이날 박 대통령과 면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표단은 청와대 실무진과 면담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전하고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이 무산되면서 올해 35주년 기념

식 파행도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35주년 행사위는 최근 대통령과 면담에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올해 35주년 기념식에 불참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해주는 행사관련 예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35주년 행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 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권을 무시하고 5·18을 왜곡·부정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표단은 조만간 5월 관련단체와 35주년 행사위간 연석회의를 연 뒤 대국민 호소문 등 기념식 불참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15광주인권상’ 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 실레가르 선정

특별상엔 라오스 ‘참여개발훈련센터’ 설립자 쉘바쓰

인도네시아 분쟁지역인 웨스트파푸아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 라피파 아눔 실레가르(여·47·Lati-fah Anum Siregar)씨가 ‘2015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또 특별상엔 라오스에서 농촌빈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는 ‘참여개발훈련센터’(The Participatory Development Training Center) 설립자 쉘바쓰 쉘폰(63·Sombath Somphone)씨가 선정됐다.

‘2015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6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라피파씨와 쉘바쓰씨를 광주인권상과 특별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라피파씨는 파푸아 민주주의 연합의 장 등을 역임하면서 긴장과 폭력이 난무하는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웨스트 파푸아는 지난 1969년 인도네시아 당국의 감시 아래 실시된 독립찬반투표에서 당국의 방해 공작으로 독립이 무산됐다.



실레가르씨 쉘바쓰씨

현재 이곳에선 독립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과 체포·고문·강간·살인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 인권기구 임파살과 함께 여성인권수호자들을 위한 제도개

혁·파푸아 인권운동활동가 보호·유엔보 고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특별상에는 미국에서 농업석사학위를 받은 뒤 자국으로 돌아와 참여개발훈련센터 설립해 유기질 비료도입·스레기 재활용·친환경농업기술 및 영세기업 발전 등 농촌빈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쉘바쓰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치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농촌빈민에만 평생을 바친 쉘바쓰씨는 지난 2012년 12월 15일 납치 실종됐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8일 오후 4시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미화 5만 달러와 금장 메달, 상장 수여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월어머니상’ 개인부문 고 박경순·김종석씨 수상

단체부문, 극단 신명 선정

광주시와 (사)오월어머니집은 ‘제9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개인부문은 고 박경순씨와 김종석 무등일보 편집국장, 단체부문 극단 신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 박경순씨는 1980년 5월 항쟁 시 가족(오빠 박병규)을 잃고, 그 이후 5·18진

상 규명과 전두환 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희생자 가족 정보를 수집·분석해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5월 희생자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2005년에는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에 취임해 5월 정신에 걸맞게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 시상식은 오는 8일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담보 비율 : 최대 70% 나대지 원룸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상임의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인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